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신곡유화(船谷由花)*
서우석(徐雨錫)**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고, 둘째,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며, 셋째, 다문화 행동의 구조모형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행동의도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행동경험을 가진 총 550명을 유의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은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다문화 행동모형에서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에, 그리고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나 다문화 행동의도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 내에서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행동의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그리고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행동, 다문화 행동모형,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

* 제1저자, 경인교육대학교 진로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sws@ginue.ac.kr

1. 서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도 빠르게 다문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5년간 내국민의 학령인구(6~21세)는 해마다 평균 18만 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의 학령인구는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학생 대비 1.9%(109,387 명)에 달하게 되었고 그 이외 외국인주민 미취학(만 6세 이하) 자녀는 3.6%(113,506 명)에 이르게 되었다(교육부, 2018). 게다가 다문화 가정 출산율(2.5%)은 국내 초저출산율(1.2%)에 비해 2배 이상(한국개발연구원, 2017)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다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입장에 따라 ‘위기’ 또는 ‘가능성’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김기영, 2017),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긍정적 가능성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문화 인지와 정서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친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선곡유화, 서우석, 2018).

청소년기에는 인간발달 특성상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인지-정서-사회적 발달 경험으로 다양한 능력이 확대되는 시기이며 기존의 가치관이 재구성됨에 따라 정서 변화는 어느 때보다 심하고 때로는 극단적 양상을 지니기도 한다(Fabes et al., 1999). 특히 청소년기 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사회적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도덕성, 윤리성, 사회성 등을 복합적으로 형성하게 된다(Eisenberg et al., 2006).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이 속하는 문화적 정체성 발달과 함께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Eisenberg & Fabes, 1990)이며,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Larson et al., 2002).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민감한 청소년기에 다문화 사회에서 적합한 다문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행동(multicultural behavior)이란, 다문화 상황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행위를 의미한다(선곡유화, 서우석, 2018). 이와 같은 성숙한 다문화 행동을 하는 데에 어떤 심리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어떤 변인 간의 경로를 통해 올바른 다문화 행동이 표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선곡유화, 서우석, 2017). 왜냐하면 올바른 다문화 행동을 취하게 되면 다문화 사회에 공존하는 복수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충돌, 폐해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Ajzen & Gilbert Cote, 2008).

지금까지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태도, 수용성 등 인지와 정서적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출신국가나

경제수준에 따라 이중적 양상을 지니기도 한다(교육부, 2018). 특히 다문화 배경 사람들과 실제로 가족, 학교, 직장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이러한 심적 현상을 인간의 인지와 정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지행동모델(cognitive-behavioral model)에 비추어볼 때, 우리 청소년의 다문화적 인지와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실제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현재까지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용성, 태도 등의 심리적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기타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예, 김경근, 이기혜, 2016; 민무숙 외, 2012; 심미영, 이온유, 2017; 장진경, 전종미, 정영혜, 2015 등)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다문화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관련 변인들과 실제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발현을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김금미(2011)는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행동의도 간의 관계 외에 정체성, 고정관념, 편견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동모형에 터하여 다문화 행동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에만 국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피험자가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명확히 구분해서 측정했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국내에서 다문화 행동의도척도(선곡유화, 2016; 선곡유화, 이영선, 서우석, 2018)가 개발되었다. 이 척도를 바탕으로 선곡유화와 이영선(2017)은 Fishbein과 Ajzen(1981)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이하 TRA로 표기)에 터하여 고등학생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행동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밝혔다. 그 결과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태도는 모두 다문화 행동의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 다문화 행동 변인까지 확장하지 못한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 후 다문화 행동척도(선곡유화, 서우석, 2017/2018)가 개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선곡유화, 서우석, 2017)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문화 태도를 거쳐서 다문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다만, 여기서는 선행연구(Fishbein & Ajzen, 1975/1981)에서 주장해온 태도와 행동 사이에 고려되는 강력한 중개요인인 행동의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선곡유화, 서우석,

2017), 다문화 인식과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선곡유화, 이영선, 2017)에 영향을 미치고,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금미, 2010/2011)는 것이다. 여기서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문화 행동의도나 다문화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선곡유화, 서우석, 2017; 선곡유화, 이영선, 2017) 다문화 태도도 다문화 행동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문화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81).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행동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가설적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운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문화 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와 다문화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는 청소년 다문화 행동모형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 다문화 행동모형 내부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행동의도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의 개념

다문화 행동에서 행동(behavior)은 심리학적 견해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인간의 행위(action)를 의미한다. 행동과 행위는 흔히 혼용되는데 행위는 수단을 고려하고 선택을 통해 결정되는 자각된 활동으로 목적과 동기적인 속성(motivational attribution)을 지닌 개인의 자발적 의사활동이다(大辞泉, 2012). 즉, 내부와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움직임이나 추상적 내면의 행동(covert behavior)과는 구별되며 목적의식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만이 행위로 간주된다(National Cancer Institute, 2005, 이하 N.C.I.로 표기).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하 행동과 행위가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 행동은 상기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영어표기는 학술용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행동은 behavior, 다문화 행동은 multicultural behavior로 표기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다문화 행동을 문화 차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문화 공존사회를 지향하는 주도적인 실제 행위(선곡유화, 서우석, 2017)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 행동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선곡유화, 서우석, 2018)에 근거하여 상호문화 소통행동, 다문화 원조행동, 다문화 공존행동의 3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다문화 인식(multicultural cognition)의 기반개념이 되는 일반적 인식(cognition)은 지식에 대한 지각, 자각, 추론 그리고 판단 과정에서 나아가며 주관적 이해를 토대로 지식의 형성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인지적 활동이다(American Heritage Dictionary, 2018). 인식은 사물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작용으로 지식형성과 동반하여 알게 된 성과를 의미하는 ‘지식’(Berkeley, 1710; Locke, 1690)과는 다르다. 다문화 연구에서 인식으로 빈번히 번역된 ‘perception’, ‘awareness’과도 구별되고 차별화되는 개념이다(선곡유화 외, 2017). 또한 cognition은 철학 분야에서 ‘인식’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인지과학, 교육학, 심리학에서는 ‘인지’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인지’는 사회-문화적 심리를 포괄한 개념으로 수동·능동적 상태를 정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표상(representation)의 내용인 반면, ‘인식’은 그에 비해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수동 상태의 ‘읽’ 과정으로 정보처리 개념이 강조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정모, 2012).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인식은 철학적 견해에서 지식에 관한 지각이나 추론에 의해 주관적 이해에 대한 결과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심적 활동(mental activity)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청소년 다문화 인식은 인지(cognitive)영역에 국한하여 다문화에 대한 주관적 생각 또는 의견(선곡유화, 서우석, 2017)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경험적 근거(선곡유화 외, 2017)로 하여 다문화 가치인식, 문화 다양성 인식, 다문화 공생인식의 3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다문화 태도(multicultural attitude)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일반적 태도는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학습된 호의·비호의적 경향(predisposition)으로 정의된다(Ajzen & Fishbein, 1977). 즉, 기존 태도의 3요소모델(인지-정서-행동 요소)과 달리 정서(affect)요소만 태도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행동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이다(김금미, 2010/2011; 선곡유화, 서우석, 2017; Ajzen, 1985; Powell & Ham, 2008). 태도의 3요소 중 인지 요소는 인식으로, 정서요소는 태도로, 행동요소는 행동의도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인간의 특정한 행동체계를 해명할 수 있는 실제 행동모델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선곡유화 외, 2016/2017/2018; Ajzen & Fishbein, 1977/1980; Fishbein & Ajzen, 1975/1981).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의 청소년 다문화 태도는 자신과 다른 문화 배경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호의·비호의적 반응의 경향(선곡유화 외, 2016)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 태도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경험적 근거(선곡유화 외, 2016)로 하여 다문화 개

방성,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공존성의 3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실천 의지와 행동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개인의 예상과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고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으로 정의된다(Ajzen, 1985/1991; Boulding et al., 1993; Fishbein & Ajzen, 1975; Menaghan & Parcel, 1991).

행동의도는 태도의 하위 요소 가운데 행동(behavioral)요소에 국한된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multicultural behavioral intention)는 특정 다문화에 대한 행위를 실천에 옮기려는 개인의 의지(선곡유화, 이영선, 2017)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문화 행동의도의 구성요소는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경험적 근거(선곡유화 외, 2018)로 하여 상호문화 소통 행동의지, 원조 행동의지, 공존 행동의지의 3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고자 한다.

2. 다문화 행동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인간 행동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행동이론은 인지이론과 행동이론을 통합한 인지행동이론을 기초로 전개되었다(N.C.I., 2005). 인간의 인지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지행동이론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梁亨恩, 2013).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태도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혀왔다(Fishbein & Ajzen, 1975; Wicker, 1969/1971). 이러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Ajzen과 Fishbein(1977)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밝힌 총 142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3%(46편)가 태도와 행동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중 40%(57편)는 태도와 행동의 상관이 0.4 이하이며 나머지 27%(39편)만이 0.4 이상인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정적(藤井, 2002)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이후 태도 이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게 되었다(井上, 1999).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주관적 규범, 태도, 행동의도로 행동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행동 모델인 Fishbein과 Ajzen(1981)의 합리적 행동이론(TRA)이 성립된 것이다(김명소, 김금미, 한영석, 2004; 大沼, 2013; 中村: 2001; 藤井, 2002).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의 기반이 되는 TRA의 개념구성의 공식과 해석은 <표 1>과 같다.

우선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은 어떤 행위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해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인식한 준거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특정 행동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특정한 행동을 행하는 데 준거 집단의 의견을 인식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 bj)과 그에 준수하는 동기(motivation to comply: mc i)의 곱으로 추정된다.

<표 1> Fishbein & 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TRA)의 개념구성

공식	해석
$SN \propto \sum_{j=1}^n b_j m_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 주관적 규범 · b_j: B를 수행해야한다는 준거자의 생각하는 규범적 신념 · m_j: 준거자의 생각에 따르려는 개인의 동기 · n: 주요한 준거 집단의 수
$A_B \propto \sum_{i=1}^n b_i e_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 B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태도 · b_i: B를 수행하는 결과에 대한 신념 · e_i: 결과에 대한 평가 · n: 주요한 결과의 수
$B \sim BI \propto (w_1 A_B + w_2 S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관심 있는 행위 · BI: B를 수행할 개인의 의도 · w_1, w_2: AB와 SN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한 경험적으로 결정된 가중 파라미터

주) 井上(1999); 中村(2001)를 참조하여 본고 연구팀이 각 변인에 대한 해석을 번역하고 표를 제작하였음

그리고 태도(attitude: AB)는 특정한 행위를 취하기 위해 주요한 결과에 대한 신념(b_i)과 결과에 대한 평가(e_i)의 곱이 추정치가 된다. 또한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BI)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으로 이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w_1, w_2)이 추정된다. 행동의도는 인간의 특정한 행동을 취하려고 유인(incentive)하는 결정적 변인으로 널리 확증되어 있다(Ajzen & Gilbert Cote, 2008).

이와 같은 TRA의 변인들을 구성 틀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행동을 설명하는 유력한 직접 영향요인으로 입증된 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대응시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TRA의 주관적 규범은 다문화 인식(김종학, 최보성, 2014; 선곡유화, 서우석, 2017; 선곡유화, 이영선, 2017), TRA의 태도는 다문화 태도(선곡유화, 서우석, 2017; 선곡유화, 이영선, 2017), 그리고 TRA의 행동의도는 다문화 행동의도(김금미, 2010/2011; 선곡유화, 이영선, 2017)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행동체계를 밝히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도의 단일차원모델 구조, 즉 다문화 인식 = 인지영역(cognitive domain), 다문화 태도 = 정서영역(affective domain), 다문화 행동의도 = 행동영역(conation/behavioral domain)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선행연구(김금미, 2010/2011; 선곡유화, 서우석, 2017; 선곡유화, 이영선, 2017; Fishbein & Ajzen, 1975/1981)를 경험적 근거로 하여 적합한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multicultural behavior model : MBM)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문화 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 행동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태도 간의 직접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다수 수행된 반면, 다문화 행동의도 및 다문화 행동까지 포함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미미한 연유로 행동과학연구가 선진적으로 수행된 기타 학술 분야(경영, 건강 등)에서 검증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인식, 태도, 행동의도 및 행동 간의 관계 분석

가설	변인 관계	연구 결과	연구자
2-1	인식 ⇒ 태도	$\beta = -.31$ ***	송병원(2016)
		$\beta = .807$ ***	선곡유화, 서우석(2017)
2-2	태도 ⇒ 행동의도	$\beta = .41$ **	김보람, 천승현(2018)
		$\beta = .451$ ***	김광용, 조선배(2014)
2-3	행동의도 ⇒ 태도	$\beta = .29$ ***	김금미(2011)
		$\beta = .806$ ***	선곡유화, 이영선(2017)
2-4	행동의도 ⇒ 행동	$\beta = .765$ ***	김기영, 강진희(2016)
		$\beta = .45$ ***	김보람, 천승현(2018)
가설	매개효과	연구 결과	연구자
3-1	인식 ⇒ 태도 ⇒ 행동의도	$\beta = .392$ ***	선곡유화, 이영선(2017)
3-2	인식 ⇒ 행동의도 ⇒ 행동	$\beta = .183$ **	김보람, 천승현(2018)
3-3	태도 ⇒ 행동의도 ⇒ 행동	$\beta = .114$ **	김보람, 천승현(2018)

주) ** p<.01, *** p<.001, β : 표준화 회귀계수

우선, 다문화 인식이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았다(송병원, 2016; 선곡유화, 서우석, 2017; 장익준, 이기용, 2014; 황향희, 이유진, 2014). 그리고 다문화 인식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광용, 조선배, 2014; 김보람, 천승현, 2018)도 있지만, 다문화 인식이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선곡유화, 이영선, 2017; 정재훈, 2015)도 있다. 그리고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며(김금미, 2011; 김효영, 류기상, 류형서, 2015; 선곡유화, 이영선, 2017),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영, 강진희, 2016; 김보람, 천승현, 2018; Ajzen, 1991; Fishbein & Ajzen, 1981).

이상의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인 청소년 다문화 행동 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 및 다문화 행동 간의 직접적 영향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1: 청소년 다문화 행동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토대로 설정된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은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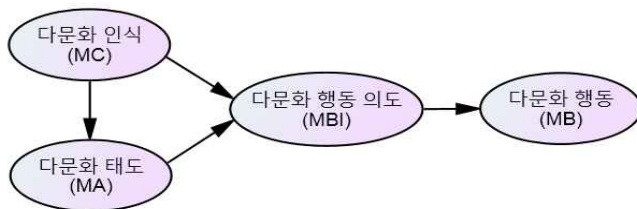
가설 2.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 내에서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가설 2-1], 다문화 행동의도[가설 2-2]에 직접적 영향이 유의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가설 2-3]에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며,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행동[가설 2-4]에 직접적 영향이 유의할 것이다.

다음은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사한 행동이론에 입각한 다양한 학술분야(경영, 건강, 여가, 소비, 보건 등)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로 삼았다.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김기영, 강진희, 2016; 선곡유화, 이영선, 2017), 또한 행동의도를 매개로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김보람, 천승현, 2018). 그리고 다문화 태도는 행동의도의 매개로 행동에 간접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김기영, 강진희, 2016; 김보람, 천승현, 2018; Ajzen, 1985/1991; Fishbein & Ajzen, 1981).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모형 내에서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가설 3-1]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행동의도[가설 3-2]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가설 3-3]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81)과 선행연구의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 다문화 행동의 이론적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청소년 다문화 행동의 이론적 연구 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본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1,669,699명, 한국교육개발원, 2017)이었다. 모집단 규모가 백만 명을 넘을 경우 384명이 적절한 표집 기준이며(Krejcie & Morgan, 1970), 요인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300명 이상의 표집을 권장하고 있다(Comrey & Lee, 2013). 이를 준수하여 다문화 교육 중점 고등학교에서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의 유의표본 추출법(purposive sampling)으로 다문화 학생들과의 실제 경험과 함께 기타 다양한 다문화 행동경험을 가진 고등학생 총 550명을 표집 하였다. 그 가운데 93.5%인 514부가 유효자료로 선정되었으며 신뢰도가 확보된 수준(Tinsley & Tinsley, 1987)에서 표본이 추출되었다.

표집 된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정보 내용	참여자	비율 (%)	합계(n)
성별	남학생 / 여학생	258 / 256	50.2 / 49.8
학년	1학년 / 2학년	469 / 45	91.2 / 8.8
지역	수도권 / 비수도권	378 / 136	73.5 / 26.5
다문화 행동 경험자	514	100	514 (100%)

성별에 관해서는 남학생 50.2%(258 명), 여학생 49.8%(256 명), 그리고 학년은 1학년 91.2%(499 명), 2학년 8.8%(45 명), 지역은 수도권 학생 73.5%(378 명), 비수도권 학생 26.5%(136 명)이었다. 그리고 표집 된 학생 모두 다문화 학생과의 직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 내용은 인구통계학적인 질문과 연구모형의 측정변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곡유화 외(2017)의 연구에서 개발되고 타당화된 청소년용 다문화 인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화 다양성 인식(4문항), 다문화 가치 인식(4문항), 다문화 공생 인식(5문항), 3가지 하위요소이며 총 13문항의 구성으로 각 문항은 1(전혀 아니다)부터 6(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리커트형 척도(likert type scale)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다문화 공생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선곡유화와 서우석(201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이하 α 로 표기) = .889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α = .891, 각각 하위요소별로는 다양성 = .704, 가치 = .832, 공생 = .767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곡유화 외(2016)의 연구에서 개발되고 타당화된 청소년용 다문화 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문화 개방성(6문항), 다문화 수용성(5문항), 다문화 공존성(5문항), 3가지 하위요소의 총 16문항이며 리커트형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 다양성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문화에 민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다문화 배경 사람들의 문화차이를 존중하고, 공감의식을 가지며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선곡유화와 서우석(2017)의 연구에서 전체 α = .948로 보고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α = .950, 각 하위요소별로는 개방성 = .912, 수용성 = .851, 공존성 = .915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곡유화 외(2018)의 연구에서 개발되고 타당화된 청소년용 다문화 행동의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호문화 소통 행동의지(6문항), 원조 행동의지(5문항), 공존 행동의지(5문항)의 3가지 하위요소의 총 16문항이며 리커트형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적극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나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타인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의지, 또한 다문화를 존중하며 다문화 공생을 지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선곡유화 외(2018)의 연구에서 전체 α = .965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α = .966, 각 하위요소별로는 상호문화 소통 행동의지 = .947, 원조 행동의지 = .933, 공존 행동의지 = .908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곡유화와 서우석(2018)의 연구에서 개발되고 타당화된 청소년용 다문화 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화 소통행동(4문항), 다문화 원조행동(5문항), 다문화 공존행동(3문항)의 3가지 하위요소의 총 12문항이며 리커트형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 배경 사람들과 능동적으로 교류하고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대응하며, 비판적 사고로 자문화와 다문화를 다루며, 다문화 집단과의 공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다문화 통합사회를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선곡유화와 서우석(2018)의 연구에서 전체 α = .907로 보고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α = .907, 각 하위요소별로는 문화소통행동 = .896, 원조행동 = .860, 공존행동 = .86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절차

수집 자료는 청소년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사용되었다. 활

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v24.0과 호환 가능한 AMOS v24.0이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실제 측정이 어려운 청소년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밝히고 가설 모델을 실증하는데 효과적 기법인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혼동(interpretational confounding)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먼저 개념측정의 적절성 검토의 측정모형 분석 후, 가설적 인과적 모델 검증의 SEM 분석을 하는 접근법(Kline, 2011)인 two-step approach(Anderson & Gerbing, 1988)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SEM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결측치, 이상치, 정규성, 다중공선성, 일변량 및 다변량 등)을 통해 입력 자료를 점검하였다. 분석은 원자료가 활용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에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활용하였다. bootstrap의 재표집(resampling) 횟수 증가는 검증력과 비례하여 Stine(1989)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는 1000번 이상을 반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의 재표집 횟수를 2000회로 설정하였다(MacKinnon, 2000; Shrout & Bolger, 2002).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로 표기)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모수, 적재량과 잠재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관찰변인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CFA의 표준화 적재치(β)는 일반적으로 $\geq .5$ 이면 타당도가 확보되며(Fornell & Larcker, 1981), $\geq .7$ 이면 개별 관측변수의 타당성이 보수적으로 판정된다(Tabachnick & Fidell, 2007). 다음 측정모형 분석으로 타당화된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청소년 다문화 행동모형에 관해서 SEM 분석을 실시하여 초기모델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기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모형수정 절차를 거쳐 최적모형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채택된 최종모형 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중매개 분석에는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적용(배병렬, 2014)하여 각 매개변인의 개별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산출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해서는 bootstrap을 설정하여 입증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된 적합도 지수는 SEM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권장하고 있는 모델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Byrne, 2010; Sun, 2005)을 참조하였다.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의 χ^2 ($Q = 2.0-5.0$), GFI($\geq .90-1$), RMSEA($\leq .08-.10$), SRMR($\leq .05$),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의 CFI, NFI, TLI($\geq .90-1$) 등의 평가기준이 부합될 경우 모델적합도가 확보된 것으로 해석하였다(배병렬, 2014; Henry & Stone, 1994). 그리고 초기연구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간명도 비교분석 시 간결적합지수(parsimony fit indices)의, PRATIO(parsimony ratio), PNFI, PCFI, PGFI(0-1 사이에서 지수가 높을수록 우수), AIC, CAIC, ECVI(지수가 낮을수록 우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모델 적합도 판정 기준 가운데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χ^2 은 명확한 평가준거로 적절하지 않다(Bentler & Bonett, 1980)는 지적을 수용하고 산출된 χ^2 은 제시하였으나 판정준거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CFI나 NNFI(TLI)값이 높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을

때 RMSEA값이 현격히 나쁠 경우가 간혹 있다. 이는 모형 내의 측정변인이 작을 경우 모형오류가 작아도 자유도가 작기 때문에 RMSEA이 커진다(홍세희, 2000). 이러한 RMSEA의 단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RMSEA에 대한 평가기준은 $\leq .08$: 좋은 편, $\leq .10$: 적합(문수백, 2013)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타 CFI, NNFI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판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문항별 전체 평균(M) = 13.22-28.74, 6점 평균(M) = 3.75-5.21, 표준편차(SD) = 2.44- 5.17로 나타났으며, 하위 변인 별 SD는 다문화 인식의 SD = 2.44-3.21, 다문화 태도의 SD = 3.56-5.17, 다문화 행동의도의 SD = 4.03-4.87, 다문화 행동의 SD = 2.99-4.48 사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CFA를 통해 관찰변인의 일변량과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점검하였다. 일변량 정규성 검토는 왜도 ± 2 미만, 첨도 ± 4 미만(배병렬, 2014), 다변량 정규분포성은 왜도 ± 2 미만, 첨도 ± 7 미만(West, Finch, & Curran, 1995)일 경우 정상분포 충족조건 기준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12개 측정변인의 왜도 절댓값 = 최소 -.486에서 최대 .412이며 첨도 절댓값 = 최소 -1.034에서 최대 -.006으로 나타나 SEM 분석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표 4〉 참조).

한편 AMOS에서 제공하는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다변량 첨도 = 31.140, 검정통계량 = 19.258로 나타나 $p < .01$ (절댓값 2.58)에서 정규성 가정이 기각되었다(Mardia, 1970). 따라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비정규자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bootstrap기법을 활용하여 재표집 횟수는 2000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안정적인 SEM 분석에 앞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관찰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의 공차한계(tolerance, $\geq .10$) = .240-.509,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 10) = 1.964- 4.159 사이로 모두 판정기준을 지지하여 다중공선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표 4〉 기술통계

잠재변인	관찰변인(문항 수)	평균	6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다문화 인식	다양성 C (4)	20.34	4.07	2.50	13	24	-.281	-.568
	가치 C (4)	20.82	5.21	2.44	12	24	-.486	-.177
	공생 C (5)	24.50	4.9	3.21	15	30	-.109	-.594
다문화 태도	개방성 A (6)	27.71	4.62	5.17	13	36	-.187	-.712
	수용성 A (5)	24.68	4.94	3.56	11	30	-.245	-.494
	공존성 A (5)	23.21	4.64	4.33	11	30	-.048	-.671
다문화 행동 의도	상호소통 BI (6)	28.74	4.79	4.87	15	36	-.088	-.878
	원조행동 BI (5)	22.61	4.52	4.03	10	30	.095	-.489
	공존행동 BI (5)	23.32	4.66	4.07	12	30	.043	-.801
다문화 행동	상호소통 B (4)	17.90	4.48	3.81	8	24	-.034	-.728
	원조행동 B (5)	18.77	3.75	4.48	8	30	.412	-.006
	공존행동 B (3)	13.22	4.41	2.99	6	18	.087	-1.034
Multivariate Normality (from AMOS)								31.140

주) C: 인식, A: 태도, BI: 행동의도, B: 행동

(n=514)

다음 〈표 5〉에는 이 연구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의 기초행렬이 되는 관찰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p<.01)한 내용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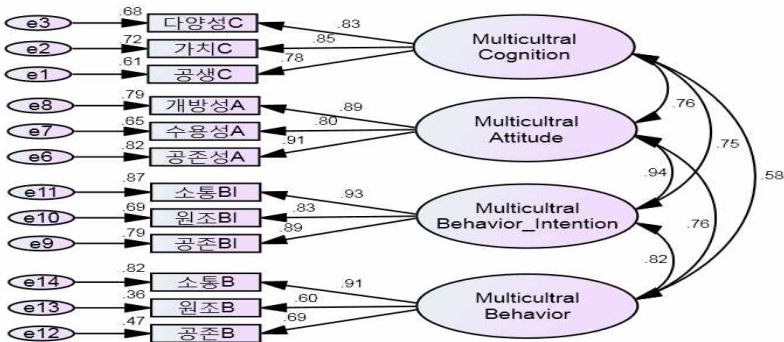
〈표 5〉 관찰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M C	1 다양성 C	1										
	2 가치 C	.704**	1									
	3 공생 C	.627**	.679**	1								
M A	4 개방성 A	.524**	.523**	.548**	1							
	5 수용성 A	.660**	.616**	.515**	.684**	1						
	6 공존성 A	.577**	.533**	.506**	.827**	.710**	1					
M B	7 상호소통 BI	.591**	.591**	.575**	.801**	.715**	.774**	1				
	8 원조행동 BI	.529**	.515**	.520**	.681**	.645**	.701**	.766**	1			
M B	9 공존행동 BI	.559**	.530**	.500**	.690**	.704**	.781**	.834**	.744**	1		
	10 상호소통 B	.456**	.426**	.433**	.618**	.578**	.624**	.704**	.623**	.636**	1	
	11 원조행동 B	.227**	.207**	.261**	.394**	.337**	.397**	.458**	.540**	.452**	.534**	1
	12 공존행동 B	.385**	.340**	.322**	.384**	.442**	.465**	.479**	.444**	.529**	.630**	.429**

주) **sig. p<.01, MC: 다문화 인식, MA: 다문화 태도, MBI: 다문화 행동의도, MB: 다문화 행동 (n=514)

2. 측정모형 분석

Anderson & Gerbing(1988)의 two-step approach법에 의거하여 첫 단계인 측정모형의 CFA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 = 290.194(df=48, p<.001)$, SRMR = .0361, RMSEA = .099, GFI = .914, NFI = .942, TLI = .932, CFI = .951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 모두 양호한 수준(Hair et al., 2010)에서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CFA)

그리고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해당 관찰변인의 설명량인 β 값을 확인한 결과 β 값 = .603-.935($p<.001$) 사이로 모두 수렴타당도의 검증기준($\geq .50 \sim .95$, Bagozzi & Yi, 1991)을 충족하였다. 또한 잠재변인 간의 상관성을 토대로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의 측정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AVE는 다문화 인식 = .755, 다문화 태도 = .671, 다문화 행동의도 = .714, 다문화 행동 = .502로 나타났으며, C.R.은 다문화 인식 = .902, 다문화 태도 = .859, 다문화 행동의도 = .882, 다문화 행동 = .745로 수렴타당도의 평가기준(AVE $\geq .50$, C.R. $\geq .70$, Hair et al., 2010)을 모두 충족시켰다. 그리고 AVE값을 기반으로 변수 간의 상관계수(ρ)의 제곱값과 비교한 결과, AVE값이 전반적으로 큰 것이 확인되어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도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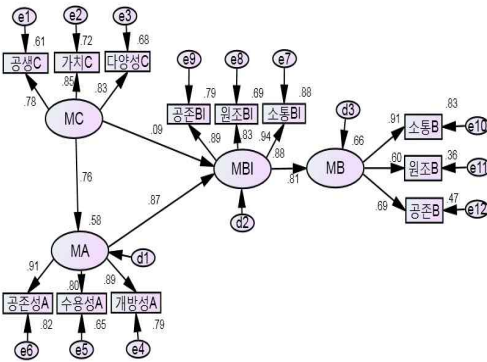
3. 연구모형의 분석 및 모형 수정

앞서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는 것이 입증되어 다음 단계에서는 가설적으로 설정한 청소년 다문화 행동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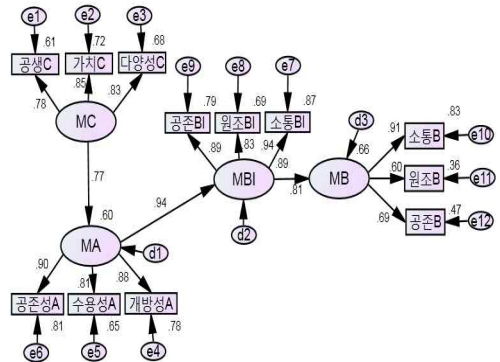
그 결과 초기모형의 적합도 기준의 절대적합도 지수의 SRMR = .0370, RMSEA = .097, GFI = .914, 증분적합 지수의 NFI = .941, CFI = .951, TLI = .935로 모두 양호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 다문화 행동의 구조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6〉 참조).

다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문화 인식의 다문화 행동의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관계를 유추하였으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가운데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직접 경로계수만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 대상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문화 태도의 매개로 다문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서 실제 다문화 행동에까지 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인식이 행동의도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선곡유화, 이영선, 2017; 정재훈, 2015; Solomon, 2002)는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직접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초기 연구모형과 비교분석하였다(〈표 6〉 참조).



[그림 3] 초기 모형



[그림 4] 대안 모형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SRMR = .0361, RMSEA = .097, GFI = .913, NFI = .940, CFI = .950, TLI = .935로 모두 양호한 수준을 지지하였다.

〈표 6〉 청소년 다문화 행동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지수	판단기준	초기모형	대안모형	차이
$\chi^2 / df / p$	$p > .05$	292.078 / 50 / .000	295.291 / 51 / .000	↑ 3.213 / 1
SRMR	≤ .05	.037	.0361	↓ .0009
RMSEA (90% 신뢰구간)	≤ .08-.10	.097 (.087-.108)	.097 (.086-.107)	-(↓ .001)
GFI		.914	.913	↓ .001
NFI	≥ .90-1	.941	.940	↓ .001
CFI		.951	.950	↓ .001
TLI(NNFI)		.935	.935	-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면 GFI, NFI, CFI는 각각 .001이 초기모형이 우수하고, RMSEA, TLI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SRMR은 대안모형이 .0009 더 개선되었으며 자유도가 1 큰 모형의 대안모형이 간명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다.

다음은 산출된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초기모형의 경로계수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대안모형의 경로계수도 모두 유의하였다(〈표 7〉 참조).

〈표 7〉 청소년 다문화 행동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의 경로계수 비교

구분	초기모형				대안모형			
	B	β	S.E.	C.R.	B	β	S.E.	C.R.
MC → MA	1.380	.759	.087	15.821***	1.401	.773	.087	16.175***
MC → MBI	.122	.085	.063	1.933				
MA → MBI	.689	.873	.040	17.354***	.749	.944	.029	25.870***
MBI → MB	.777	.812	.037	20.977***	.777	.812	.037	21.006***

주) ***sig. $p < .001$, B=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S.E.=standardized error, C.R.=critical ratio, MC: 다문화 인식, MA: 다문화 태도, MBI: 다문화 행동의도, MB: 다문화 행동 (n=514)

이러한 결과에서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보다 다문화 태도의 매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모형비교 및 최종모형 선정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최적 모형 선정을 위하여 앞서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비교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모형이 비내포모형(non nested model)으로 직접적인 χ^2 차이검증이 불가하여 모형 간의 간명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모형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활용된 간명도 평가지수는 PGFI(간명적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PNFI(간명표준적합지수), PCFI(간명비교적합지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CAIC(consistent AIC), ECVI(expected cross-validation index) 등 통계이론(배병렬, 2014; Kenny & McCoach, 2003)에서 추천되는 7 가지 항목의 평가 기준지를 통해 판정하였다(〈표 8〉 참조).

그 결과 초기모형의 PGFI=.586, PRATIO=.758, PNFI=.713, PCFI=.720, AIC=348.078, CAIC=494.861, ECVI=.679로 나타났다. 한편 대안모형의 PGFI=.597, PRATIO=.773, PNFI=.727, PCFI=.734, AIC=349.291, CAIC=490.831, ECVI=.681로 나타나 AIC와 ECVI를 제외한 PGFI, PRATIO, PNFI, PCFI, CAIC 5 가지 항목의 지수가 초기모형에 비해 우수하게 개선되었다.

〈표 8〉 청소년 다문화 행동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의 간명도 지수 비교

적합도 지수	판단기준	초기모형	대안모형	차이
PGFI		.586	.597	↑.011
PRATIO	0~1사이에서	.758	.773	↑.015
PNFI	지수가 높을수록	.713	.727	↑.014
PCFI	간명도가 좋음	.720	.734	↑.014
AIC	0에 가깝게	348.078	349.291	↑1.213
CAIC	지수가 낮을수록	494.861	490.831	↓4.03
ECVI (90% 신뢰구간)	간명도가 좋음	.679 (.581-.791)	.681 (.583-.794)	↑002

그리고 내생 잠재변인이 외생 잠재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이 나타내는 잠재변인의 다중상관계급 값(R^2 smc)을 비교하였다(〈표 9〉 참조).

〈표 9〉 청소년 다문화 행동 초기모형과 대안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지수 비교

변인	초기모형 (R^2 smc)	대안모형 (R^2 smc)	차이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576	.598	↑.022
다문화 행동의도	.882	.890	↑.008
다문화 행동	.659	.660	↑.001

그 결과 초기모형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인식에 의해 57.6% 가량 설명되며,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인식에 의해 88.2% 가량 설명되고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은 다문화 행동의도,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인식에 의해 65.9% 가량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모형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인식에 의해 59.8% 가량 설명되고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인식에 의해 89.0% 가량 설명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은 다문화 행동의도,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인식에 의해 66.0% 가량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모형은 초기모형에 비해 종속변인의 설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다.

이상의 초기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종합적 비교 분석을 통해 초기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수정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최종모형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선정된 최종 구조모형은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 및 다문화 행동 간의 인과적 다문화 행동모형은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5. 다문화 행동과 관련변인 간의 영향관계와 매개효과 분석 및 가설검증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직접 및 간접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의 연속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생성하는 방법(배병렬, 2014)을 활용하여 각 매개변인의 개별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팬텀변인은 모수치와 모형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가상 변수이다(Macho & Ledermann, 2011). 이를 구조모형 내의 각 변인 간의 간접효과를 개별 단일계수로 취급하여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 내의 모든 경로를 제한한 뒤, 개별간접효과에 따른 경로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팬텀변인을 적용하여 이어지는 경로로 표시하고 분석하였다(배병렬, 2014 참조). 이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재 전체 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에 대한 결과만을 제공하는 bootstrap방식의 한계점(홍세희, 2009)을 극복하고 다중 매개효과(신뢰구간)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가능케 한다(이현웅, 2014). 다만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bootstrap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개발된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 내의 변인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결과에 따른 가설 검증에 대하여 세부적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청소년 다문화 행동 관련 변인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 결과 및 가설검증

경로	B	β	S.E.	C.R.	가설 검증
MC → MA	1.401	.773	.087	16.175***	2-1 채택
[modify] MC → MBI	-	-	-	-	2-2 기각
MA → MBI	.749	.944	.028	25.870***	2-3 채택
MBI → MB	.777	.812	.037	21.006***	2-4 채택

경로	간접효과 (β)	S.E.	신뢰구간 (LLCI~ULCI)	가설 검증
MC → MA → MBI	.730***	.017	.653 ~ .801	3-1 채택
MC → MA → MBI → MB	.593***	.004	.494 ~ .688	3-2 채택
MA → MBI → MB	.767***	.008	.696 ~ .831	3-3 채택

주) ***sig. $p < .001$, B=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S.E.=standardized error, C.R.=critical ratio
 MC: 다문화 인식, MA: 다문화 태도, MBI: 다문화 행동의도, MB: 다문화 행동, Bias Corrected 95% 신뢰구간 LLCI=lower-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level confidence interval.
 SRMR=.0361, GFI=.913, NFI=.940, CFI=.950, TLI=.935, PRATIO=.773 (n=514)

먼저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beta = .773$ $p < .001$)에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2-1]은 채택되었으나 다문화 행동의도에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모형수정 시에 두 변인 간의 경로는 제거되어 결론적으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한편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beta = .944$ $p < .001$)에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2-3]이 채택되었고 또한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행동

($\beta = .812$ $p < .001$)에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다문화 행동모형 내의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행동의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편의교정 신뢰구간 95% 상한 값(LLCI) 및 하한 값(ULCI) 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Montoya & Hayes, 2017).

추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의도에 간접적 영향($\beta = .730$, [.653 ~ .801] $p < .001$)을 미치는 동시에 다문화 행동의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 영향($\beta = .593$, [.494 ~ .688] $p < .001$)을 미치는 것이 유의하여 가설 [3-1]과 [3-2]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 영향($\beta = .767$, [.696 ~ .831] $p < .001$)을 미치는 것이 유의하여 가설 [3-3]이 채택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과의 직접적 경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문화 행동경험을 가진 고등학교 재학생 총 5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541부의 유효자료를 활용하여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가설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 설정된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초기모형이 모형수정 과정을 거쳐 이 연구 자료를 잘 설명하는 최종 구조모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게 지지되어 청소년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 및 다문화 행동 간의 인과적 다문화 행동모형은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이는 최근 학교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선곡유화, 서우석, 2018)을 유연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의도를 함께 증진시키고 촉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동안은 다문화에 대한 심리적 변인 간의 단편적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 Fishbein과 Ajzen(1981)의 합리적 행동이론(TRA)을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시도로 다문화에 대한 행동발현에도 태도와 행동의도의 매개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이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유기적 정적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인식에 터하여 다문화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설정한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가설

[2-2]를 제외한 가설 [2-1], [2-3], [2-4]는 수락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에 직접적 정적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2-1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태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김금미, 2011; 선곡유화, 서우석, 2017; 장익준, 이기용, 2014)를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형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두 변인 간의 경로는 삭제되어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이는 이 연구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험적 근거가 된 선행연구(김보람, 천승현, 2018)과는 상반된 결과이며,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인식은 실제 행동을 유인하는 의도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선곡유화, 이영선, 2017; 정재훈, 2015; Solomon, 2002)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2-3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채택되었다. 이는 TRA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선행연구 결과(선곡유화, 이영선 2017)와 일치하였다. 또한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행동에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2-4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채택되었다. 이는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결정적 영향변인임을 밝힌 연구결과(김금미, 2011; 김보람, 천승현, 2018; Ajzen, 1985; 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8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 연구에서 TRA를 기초로 실제 다문화 행동 발현에 행동의도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힌 것은 향후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발현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수준을 올리기 위해 다문화 행동의도에 미치는 정적, 부적 변인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성숙한 다문화 행동을 유인하는 다문화 행동의도를 증진 시키는 전략적 연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에서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행동의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한 결과 각 변인 간의 간접효과 크기가 큰 수준($\geq .5$, Kline, 2005)에서 입증되어 가설 3의 [3-1], [3-2], [3-3]은 모두 수락되었다.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의도에 간접적 정적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3-1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 내에서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채택되었다. 이는 다문화 인식은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이 유의한 것을 밝힌 선행연구(선곡유화, 이영선 2017)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인식과 실제 행동을 옮기려는 의도 사이에서 긍정적인 다문화 태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다문화 태도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도 주요 변인으로 빈번히 분석되어 왔으

나 태도의 3요소모델(인지-감정-행동)로 광의개념 하에 측정되어 왔다(선곡유화, 서우석, 2017; 선곡유화 외, 2016).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단일차원모델 입장에서 인지영역=인식, 정서영역=태도, 행동영역=행동의도로 해체한 구조를 통해 실증되었으므로 기존 결과와 확연히 차별화된 연구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행동의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 정적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3-2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모형 내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행동의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행동의도의 연속다중 완전매개를 통해 다문화 행동까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편,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 정적영향이 유의하여 가설 3-3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모형 내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를 매개로 다문화 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모형의 구조관계를 밝힌 연구(선곡유화, 이영선, 2017)의 한계점을 넘어 실제 행동까지 확장한 구조모형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경험적 근거가 된 다문화 인식-태도-행동모형(선곡유화, 서우석, 2017)에 후속으로 태도와 실제 행동 간에 다문화 행동의도를 삽입하여 실증한 의도의 매개효과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관련 연구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들과 직접적 경험을 가진 학생을 유의표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의 다문화 행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더 정교하게 표집하고 이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다문화 행동모형의 적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문화 학생의 분포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청소년을 표집하고 다문화 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들의 실제 다문화 행동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제안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다문화 행동모형 내에서 설정된 변인 이외의 의미 있는 잠재변인들을 설정하여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밝히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TRA(Fishbein & Ajzen, 1981)의 주관적 규범이나 TPB(Ajzen, 1991)에 지각된 행동통제력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추가하여 주변에서 받은 영향으로 인해 변화되는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발현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선하기 어려운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이나 이미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Anti)다문화 인식 등을 고려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변인들을 방지하고 그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 과제라고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 다문화 행동 발현과정을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발현과정에는 이 연구에서 밝힌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행동의도 이외에 여러 정적·부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행위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청소년 다문화 행동에 영향 변인으로 검증된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행동의도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변인의 증진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수준과 단계별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종단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8).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서울: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 김경근, 이기혜(2016).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적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2(4), 311-335.
- 김광용, 조선배(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소비자인식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선도 특급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2), 65-73.
- 김금미(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 중심.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5(2), 259-283.
- 김금미(2011).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1-16.
- 김기영(2017). 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9(1), 371-393.
- 김기영, 강진희(2016). 확장된 합리적 행동이론(ETRA)과 휴리스틱(Heuristics)이론을 적용한 커피 전문점 선택행동 연구. **관광연구저널**, 30(1), 83-99.
- 김보람, 천승현(2018). 계획행동이론(TPB)으로 본 대학생들의 교양체육에 대한 인식과 의도, 그리고 여가시간 운동행동 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7(1), 305-319.
- 김명소, 김금미, 한영석(2004).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도덕적 책무의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21.
- 김종학, 최보영 (2014).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친사회적행동과의 관계에서 다문화 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613-641.
- 김효연, 류기상, 류형서(2015). 유기농 식품점 제품의 구매의도: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과 확장된 목표지향행동모델 비교. **외식경영연구**, 19(1), 391-411.
- 문수백(2013).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5nd ed.). 서울: 학지사.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2012). 2012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2-5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병렬(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송병원(2016). 위기책임성 인식이 조직에 대한 태도와 의료공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6(3), 111-140.
- 선곡유화(2016).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와 다문화 인식, 다문화 자기 효능감, 다문화 태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선곡유화, 서우석(2017). 청소년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행동의 관계에서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6 B), 749-773.

- 선곡유화, 서우석(2018).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145-169.
- 선곡유화, 이영선(2017).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와 다문화 인식,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태도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0(3), 21-49.
- 선곡유화, 이영선, 서우석(2016).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1233-1258.
- 선곡유화, 이영선, 서우석(2017).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2), 319-346.
- 선곡유화, 이영선, 서우석(2018).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 척도 개발과 타당화. **다문화교육연구**, 11(3), 49-75.
- 심미영, 이온유(2017).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자아존중감 및 다문화고정관념과 다문화수용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인문사회21**, 8(6), 547-559.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http://m.mogef.go.kr> 에서 2018년 5월 1일 인출.
- 이정모(2012). **심리학 인지과학 마을. 인지와 인식의 구별하기**. <http://blog.naver.com/metapsy40171771072> 에서 2018년 5월 1일 인출.
- 이현웅(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2), 225-249.
- 장익준, 이기용(2014).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3), 1-20.
- 장진경, 전종미, 정영혜(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초등학생의 성별과 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53-72.
- 정재훈(2015).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패션 명품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과시적 구매 행동의 매개과정 분석. **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Design**, 14(4), 71-84.
- 한국개발연구원(2017). 인구동향 2018년 5월. <https://master.kdi.re.kr/index.jsp>에서 2018년 8월 8일 인출.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63-78.
-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Bootstrapping 방법의 다양한 적용**. 2009 구조방정식 모형 주제별 세미나 자료집. 서울: SPSS.
- 황향희, 이유진(2014). 중등 예비교사의 다문화경험에 따른 다문화인식 및 다문화태도와의 관계. **언어와 문화**, 10(3), 269-286.

- 井上 隆二 (1999). 態度と行動 - 期待 - 価値モデル “Fishbein & Ajzenの 合理的行為” の理論をめぐって. *立正大学文学部*, 109, 77-91.
- 大辞泉 (2012). 第二版, 松村 明・監修. Tokyo, Japan: 小学館 国語辞典編集部.
- 大沼 進 (2013). 現場に根ざした問題解決のための環境行動研究アプローチ. *環境心理学研究*, 1(1), 19-26.
- 中村 雅章 (2001). 情報システム利用の人間行動モデルTAM(技術受容モデル)に関する研究. *中京経営研究*, 10(2), 51-77.
- 藤井 聡 (2002). 交通行動分析の社会心理学的アプローチ. in 北村 隆一, 森川 高行(編著). *交通行動の分析とモデリング* (pp.35-52). Tokyo, Japan: 技報堂出版.
- 梁 亨恩 (2013). ギャンブル行動理論と責任ギャンプリング戦略: IRカジノ訪問客の行動を中心に. *大阪商業大学アミューズメント産業研究所紀要*, (15), 159-182.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n (Eds.),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 11-39). Heidelberg: Springer.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0),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Ajzen, I., & Gilbert Cote, N. (2008). Attitude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In W. D. Crano & R. Prislin (Eds.),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pp. 289-311). New York: Psychology Press.
-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Retrieved September 8, 2018 from <https://ahdictionary.com/>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gozzi, R. P., & Yi, Y. (1991).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4), 426-439.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erkeley, B. G. (1710). *Of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From very old edition. First 20 or so pages. Retrieved June, 11, 2018. from <https://www.marxists.org/reference/subject/philosophy/works/en/berkeley.htm>

- Byrne, B. M. (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nd ed.). New York: Routledge.
- Boulding, W., Kalra, A., Staelin, R. & Zeithaml, V. (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for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1), 7-27.
- Comrey, A. L., & Lee, H. B. (2013).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3r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2), 131-149.
- Eisenberg, N., Fabes, R., & Spinrad, T.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ume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Fabes, R. A., Carlo, G., Kupanoff, K., & Laible, D. (1999). Early adolescence and prosocial/moral behavior I: The role of individual process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5-16.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ishbein, M., & Ajzen, I. (1981).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In G. M. Stephenson & J. M. Davis (Eds.), *Progress in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 pp. 253-313). London: Wiley.
- Fornell, C. &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 Pearson Educ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enry, J. W. & R. W. Stone (1994).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end-user satisfaction with a computer-based medical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7(3), 21-33.
- Kenny, D. A. & McCoach, D. B. (2003). Effect of the number of variables on measure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3), 333-51.
- Krejcie, R. V., & Morgan, D. 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3), 607-610.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 York: Guilford. 366. ISBN 978-1-57230-690-5.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 level modeling. In M. Williams, & W. P. Vogt (Eds.), *Handbook of methodological innovation* (pp.562-58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arson, R. W., Moneta, G., Richards, M. H., & Wilson, S. (2002). Continuity, stability, and change in daily emotional experience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3*(4), 1151-1165.
- Locke, J. (1690).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Oxford: Clarendon Press.
- Macho, S. & Ledermann, T. (2011)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6*(1), 34-43.
- Mardia, K. V. (1970). Measures of multivariate skewness and kurtosis with applications. *Biometrika, 57*(3), 519-530.
- MacKinnon, D. P. (2000). *Contras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in multivariate applications in substance use research*, ed. J. S. Rose, L. Chassin, C. Presson, and S. J. Sherman, Mahwah, NJ: Erlbaum, 141-60.
- Menaghan, E. G., & Parcel, T. L. (1991). *Transitions in work and family arrangements: Mothers’ employment conditions, children’s experiences, and child outcomes*. (pp. 225-251) in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edited by Karl Pillemer and Kathleen McCartney. Hillsdale, NJ: Erlbaum.
- Montoya, A. K., & Hayes, A. F. (2017). Two-condition within-participant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A path-analytic framework. *Psychological Methods, 22*(1), 6-27.
- National Cancer Institute(NCI). (2005). *Theory at a glance a guide for health promotion practice*. (2nd e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H Publication No. 05-389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lomon, M. R. (2002). *Consumer behavior: Buying, having, and being* (5th ed.).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 Stine, R. A. (1989). An introduction to bootstrap methods: Examples and ideas. *Sociological Methods in Research, 18*, 243-291.
- Sun, J. (2005). Assessing Goodness of fit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4), 240-256.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Tinsley, H. E. A., & Tinsley, D. J. (1987). Use of facto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14-424.
- Wicker, A W. (1969). *Attitudes versus actions: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25*(4), 41-78.
- Wicker A W. (1971). An examination of the "other variables" explanation of attitude-behavior in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1), 18-3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 논문접수 2018년 11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12월 7일 / 2차 심사 2019년 2월 13일 / 게재승인 2019년 3월 8일
- * 전공유학: 일본(카나가와현) 센조쿠학원음악대학(洗足学園音楽大学)에서 예술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재학 중에는 BK21+글로벌 다문화교육 연구원을 거쳤다.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진로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술영역은 다문화 교육, 다문화 심리(다문화 심리검사 도구 개발 등), 다문화 교육정책 국제비교연구, 다문화 학생의 진로교육 등이다.
- * E-mail: yukaqua115@gmail.com
- * 서우석: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와 대학원 진로교육상담전공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술영역은 학교 진로교육,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진로교육 국제비교연구, 진로교육기관 컨설팅 등이다.
- * E-mail: sws@ginue.ac.kr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Multicultural Behavior, Multicultural Cognition,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Behavior Intention of the Korean Adolescents

Seongok, Yuhoa*
Seo, Woo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tructural relations among multicultural behavior, multicultural cognition,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behavior intention of the Korean adolescent. For this purpose, structural model was set and analyzed, and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within the model were identified.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students in high school. 550 adolescents were drawn from 3 high school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by using a purposive sampling metho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goodness-of-fit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multicultural cognition, multicultural attitude, multicultural behavior intention and multicultural behavior was satisfactory, which confirm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Second,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behavior intention of adolescents have direct effect on multicultural behavior. However, multicultural cognition has no direct effect on multicultural behavior inten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cognition and multicultural behavior intention has moderating effect and so did multicultural attitud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behavior has moderating effect and so did multicultural behavior intention.

Finally,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major findings we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section.

Key words: Multicultural Behavior, Multicultural Cognition, Multicultural Attitude, Multicultural Behavior Inten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First author, Researche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